

상록류(喪錄類) 문헌 자료의 존재 양상과 의미*

전성운(순천향대)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상록류 문헌 자료의 특징과 의미 |
| 2. 상록류 문헌 자료의 범주 | 3.1. 문헌 자료의 특징 |
| 2.1. 문헌 자료 작성 배경 | 3.2. 문헌 자료의 의미 |
| 2.2. 문헌 자료의 범주 | 4. 맺는말 |

1. 머리말

사람의 인생은 특정 사회의 보편적 인식에 근거하여 여러 단계로 나뉜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서 일정한 의례를 행하게 되는 바, 그 의례는 오랜 시간을 거치는 과정에서 관습화되고 규범화된 전통 혹은 습속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렇게 규범화된 전통 혹은 습속은 일정한 규칙이나 절차 혹은 질서를 가지며 우리는 통상 이것을 예속(禮俗)으로 부른다. 이런 예속의 존재는 그것을 보유한 사회가 안정된 보편적 가치 체계의 인식 위에 자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상례(喪禮)는 임종(臨終)에서 담제(禫祭)에 이르는 26개월간에 행해지는 예속으로 사람이 겪게 되는 마지막 단계의 통과 의례이며, 타인에 의해 행해지는¹⁾ 대례(大禮)이다. 모든 종류의 예속에 그것을 형성하게 된 사회 문화적 배경과 사회 구성원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연구과제분
야의 지원을 받아 연구된 논문임(과제번호: KRF-2007-327-A00138).

1) 『한국민속의 세계』 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169면.

일반의 보편적 가치 및 도덕성이 내재하는 것처럼, 상례에도 그것을 행하는 집단의 생(生)과 사(死)에 대한 철학적 인식이 갈무리되어 있다.

이것은 상장례(喪葬禮)에 대한 그간의 연구가 주로 예속의 양상 및 변천, 죽음의 의미 등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기왕의 연구는 상장 예속의 문화적 의의를 고찰하고 그 현대적 변화를 주목함으로써 상장 예속에 관여한 문화적 담론의 맥락을 밝히고자 했다. 또한 상장 예속에 내장된 의미, 죽음을 바라보는 집단의 철학적, 종교적 혹은 문화적 시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요컨대, 상장 예속의 규칙과 절차 및 그 변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의미를 연구하거나 상장 예속에 반영된 삶과 죽음의 의미를²⁾ 밝혀내려고 한 연구가 중심을 이뤘던 것이다.

그 결과 우리 전통 사회의 상장 예속은 어떤 특징을 가진 채 전개되었고, 상장 예속이 사회적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예학과 관련한 상장 예론에 대한 연구의 축적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³⁾ 이런 성과는 전통 상장례에 대한 일반론적이고

2) 상장 의례와 이에 반영된 죽음의 의미에 대한 연구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이런 논의는 본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 구체적인 연구사 정리를 생략하고 연구 논문 목록만 제시하도록 하겠다. 허용호, 「전통 상례를 통해 본 죽음」, 『한국고전연구』 6, 한국고전연구학회, 2000; 이희재, 「한국 전통상례의 윤리적 의미」, 『비교한국학』 6, 국제비교한국학회, 2000; 김광익, 「문화실천 공간으로서의 죽음의 의례」, 『민족문화논총』 제 22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0; 이연숙, 「절리와 통합으로 본 통과의례의 공통성과 그 의미- 혼례와 장례를 중심으로」, 『새얼어문논집』 16, 새얼어문학회, 2004; 유권중, 「유교의 상례와 죽음의 의미」, 『철학탐구』 제16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04; 최영갑, 「유교의 상장례에 담긴 죽음의 의미」, 『논문집』 제 19호, 한국양명학회, 2007.

3) 상장례와 관련된 연구는 예속의 질서 즉 규칙과 절차 및 그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중심으로 전통적 상장 예속의 구체적 실상을 개설적 측면에서 기술한 것과 전통적 상장 의례의 현대적 변화 및 의미를 살핀 것이 대부분이다. 『한국민속의 세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한국상장례』, 국립민속박물관, 199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 1992; 『조선시대 관혼상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2000; 장철수, 『주자가례(朱子家禮)와 사례편람(四禮便覽)의 상례』, 『한국문화인류학』 6, 한국문화인류학회, 1973; 안호룡, 「조선전기 상제의 변천과 그 사회적 의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거시적인 이론 토대를 구축한 연구 성과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상장 예속의 사회·경제적 혹은 문화적 양상이나 조문과 부조 풍속의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사례에 대한 연구는⁴⁾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상장례와 관련된 생활사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기초적인 차원에서 상장례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작업이 없었기 때문이다. 상장례에 관련된 자료가 체계적으로 축적된 후에야, 이를 토대로 상장례의 구체적 측면을 고찰할 수 있다. 한마디로 상장 의례와 관련된 연구 영역의 확대 내지는 방법론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상장례 풍속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상장례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의(賻儀) 문화의 전개 양상 즉 부의의 범위, 물목(物目)의 종류 등과 같은 측면에 대한 고찰을 포함한다. 의례가 절차적 규칙에 해당한다면 부의 범위와 물목의 양상 등은 상장 의례의 실제적 양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자료는 누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상장 의례를 진행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때문에 부의 관련 자료에 대한 고찰을 통해 민간 사회에서 상장 의례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활동은 물론이고 문화적 의미까지 낱알이 해명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상장 의례의 생활사적 연구와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상장 의례에 관한 구체적 기록을 담고 있는 상록류 문헌 자료를 연구

1989; 정승모, 「상장(喪葬) 제도의 역사와 사회적 기능」, 『한국상장례』, 미진사, 1990; 정중수, 「조선초기 상장 의례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임재해, 『전통상장례』, 대원사, 1995; 장철수, 『한국의 관혼상제』, 집문당, 1995; 장현섭, 「현대 한국인의 상례 관행과 개선 방안」, 『가족학논집』 제 8집, 한국가족학회, 1996; 김종혁, 『조선의 관혼상제』, 중심, 2002; 김시황, 「한국 상례 장례 연구」, 『동양예학』 8, 동양예학회, 2002; 송현동, 「근대 이후 상장례 정책 변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역사민속학』 14, 한국역사민속학회, 2002; 송현동, 「현대 한국 장례의 변화와 그 사회적 의미」, 『종교연구』 32, 한국종교학회, 2003.

4) 이와 관련된 최근의 다음과 같은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박미혜, 「조선중기 이문건가의 친장례 준비-목제일기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통권 68호, 문학과 지성사, 2005; 정승모, 「장택지에 나타난 조선후기 장례 풍속」, 『역사민속학』 16호, 역사민속학회, 2003; 정승모, 「신응순의 『내상기(內喪記)』를 통해 본 17세기 초 상장례 풍속」, 『장서각』 제 10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대상으로 하여, 상록류 문헌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요컨대, 상록류 문헌 자료의 특징과 존재 양상을 해명함으로써 상장 의례의 구체적 실상을 해명할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⁵⁾

2. 상록류 문헌 자료의 범주

여기서는 먼저 상록류 문헌 자료의⁶⁾ 범주를 설정하고 그 구체적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즉 상록류 문헌 자료는 무엇이고, 이에 포함될 수 있는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대략적인 내용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상록류 문헌 자료 작성의 배경을 살펴보고, 상록류 문헌 자료의 범주를 설정한 후에, 이를 토대로 현전하는 상록류 문헌 자료의 존재 양상을 개관하겠다.

2.1. 문헌 자료의 작성 배경

그렇다면 상록류 문헌 자료의 작성 배경은 어떠한가. 민간에서 상(喪)이 발생하면 상장 의례를 총괄할 인적 구성을 하게 된다. 이는 통상 주상(主喪; 喪主)과 주부(主婦) 그리고 집사(執事)들로 이루어진다. 주상과 주부는 상을 맞은 남녀 주체지만 명목상으로는 상장례의 구체적 실행에 간여하지 않아야 한다. 상주는 일종의 죄인이기 때문에 상사(喪事)의 구구한 정황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고 여긴 것이다.

5) 본고는 연구 대상을 민간의 상장 의례 과정에서 발생한 문헌 자료에 제한한다. 왕실이나 국가 기관의 공식적 기록은 그 체계성과 규칙과 절차 등에서 민간 상장 의례와는 판이한 양상을 보인다. 국장도감(國葬都監)이나 예장도감(禮葬都監)을 설치하여 상장 의례를 총괄하는 경우를 민간의 생활사적 상장 의례와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6) ‘상록류 문헌 자료’는 그간 학계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용어이다. 당연한 결과로, 현재로서는 상록류 문헌 자료라는 용어의 학술적 타당성조차 검토되지 않았다. 이에 ‘상(喪)과 관련된 ‘문헌(文獻) 기록(錄)’이라는 일반적, 사전적 개념을 근거로 ‘상록류 문헌 기록’이란 용어를 제시하였다. 상장례 관련 연구가 진척됨으로써 학문적으로 좀 더 적절한 용어가 구안(具案)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점에서 상장례의 의식과 절차는 집사들에 의해 총괄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 민간 상례의 경우, 집사는 통상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체를 이룬다. 호상(護喪), 사서(司書), 사화(司貨)가 그들이다.⁷⁾ 물론 상(喪)의 규모나 형편에 따라 집사자의 인적 구성이 확대되거나 축소되기도 한다. 규모가 심하게 축소될 경우 호상조차 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호상(護喪), 사서(司書), 사화(司貨)의 인적 구성을 한다. 하지만 상의 규모가 큰 경우는 주빈(主賓), 상례(相禮), 축(祝)과 찬(贊)을 각각 두고 여기서 더하여 진설(陳設), 돈장(敦匠), 조빈(造殯), 치산(治山), 제주(題主), 제명정(題銘旌), 독제문(讀祭文) 등의 직임을 세분화하여 배치하기도 한다.

호상(護喪)은 상장 의례의 전 과정을 총 지휘하는 사람으로 예(禮)를 잘 알 뿐만 아니라 상장례의 일을 능히 주관할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선정된다. 친척이나 주상(主喪)의 친구 가운데 명망 있는 사람에게 호상의 역할을 위임하는 것이다. 사서(司書)는 상례의 전 과정에서 소요되는 문서를 작성하고 필사하는 일을 담당한다. 문서 작성과 글씨 쓰기를 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맡게 된다. 상장 의례와 관련된 문서의 대부분은 사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화(司貨)는 상장 의례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출납과 물자 조달의 일을 담당한다. 이때 사화는 재화(財貨)와 물품의 출입을 기록하고 친척이나 지우(知友)들이 보내 온 부의(賻儀)와 제전(祭奠) 등을 기록하는 일을 맡게 된다.

이외에 상의 규모와 형편에 따라 추가되는 주빈(主賓)은 빈객을 접대하는 예를 담당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빈은 통상 존속(尊屬)의 친척 중에 명망이 있는 사람으로 정한다. 상례(相禮)는 의례(儀禮)에 관한 일을 전담하여 호상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상례는 예(禮)에 능통한 친척이나 주상의 친구 중에서 선정하게 된다. 축(祝)은 제(祭)와 전(奠)의 의례를 전담하며 찬(贊)은 축의 보조역을 담당한다. 이 외에 진설(陳設)은 상차림을, 치산(治山)은 산소를 마련하는 일을, 돈장(敦匠)은 관곽(棺槨)의 일을 담당하며, 조빈(造殯)은 습렴(襲殮)의 일을, 제주(題主)는 신주(神主)의 글씨를, 제명정(題銘旌)은 명정(銘旌)의 글씨를 맡는다.

7) 『주자가례』에서 밝히고 있는 상례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집사(執事) 구성 인원이 호상(護喪), 사서(司書), 사화(司貨)이다.

또한 독제문(讀祭文)은 제문을 읽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인적 구성을 바탕으로 상장 관련 제반 의례가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문헌 자료를 작성하게 된다. 집사자들의 세분화된 업무의 분장과 그에 따른 각종 문헌 자료의 작성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호상을 비롯한 제반 의례의 집사자들이 상장례의 여러 문헌 자료를 각각 담당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민간 상례에서는 대부분 사서와 사화에 의해 작성된다.⁸⁾

그렇다면 상장 의례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헌들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먼저 상장 의례의 일을 담당할 사람을 정하여 임무를 분장하는 사람들의 명단인 ‘집사분정기(執事分定記)’가 있다. 이는 분정기(分定記), 집사기(執事記), 과록(爬錄) 등으로 불리는 바, 현재의 장례위원회 명단과 같은 것이다. 이런 집사분정기를 통해서 상(喪)의 규모, 망자(亡者)의 교유 범위, 상장 의례가 갖는 사회적 의미 등을 살펴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집사분정기를 작성할 정도의 규모를 갖춘 상례는 매우 드물다. 집사분정기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상장례, 명망 있는 사대부가 이상의 상례에서만 작성된다.

다음으로, 신종록(愼終錄)을 포함한 세 권의 다른 문서인 조객록(弔客錄), 부조기(扶助記) 등이 있다. ‘신종록’이란 표제의 오른쪽에 ‘모년모월모일모시고복(某年某月某日某時臯復)’이라고 조금 작게 쓴 문헌 자료이다. 여기에는 초종(初終)에서 장례까지의 의례 절차를 세세히 기록한다. 때문에 이 자료는 상장 의례의 규칙과 절차, 질서를 살피는데 유익하다. 이를 통해 특정 시기의 상장 의례와 그 시대적 변화 과정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조객록은 조위록(弔慰錄), 위문록(慰問錄), 조문록(弔問錄), 애감록(哀感錄), 영객록(迎客錄)으로도 칭한다. 역시 표지에는 조객록이라고 쓰고 그 오른쪽에 조금 작게 ‘연월일시고복(年月日時臯復)’이라고 적는다. 이는 조문 온 빈객(賓客)들의

8) 사서나 사화를 비롯한 집사가 작성하는 문서는 일종의 초고 상태이다. 이들 상록류 문헌 자료는 상장례가 끝난 후에 주상 혹은 상장례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에 의해 다시 정리된다. 이런 점에서 현전하는 상록류 문헌 자료는 상장례가 끝난 후에 다시 교정·정리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원천 자료 작성자란 측면에서 볼 때는 사서나 사화를 비롯한 집사들을 문서 작성자로 보는 것이 옳다.

이름을 적은 대장이다. 보통은 날짜별로 조문 온 사람들의 직위와 이름을 적고 그 아래에 간단하게 주소나 특기 사항을 적는 방식을 취한다.⁹⁾ 조객록이란 표제는 망자가 부친인 경우, 조위록은 모친, 위문록은 처자의 경우에 사용한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이런 명칭이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객록류 문헌 자료를 통해서 망자나 주상의 교분 관계, 가문의 사회적 위상, 부조 문화의 인적 범위 등을 가늠할 수 있는 기록물이다.

부조기는 사화(司貨)가 담당하여 작성하며 표지에 ‘부의록’이라 쓰고 오른쪽에 역시 조금 작은 글씨로 ‘년월일시고복(年月日時臯復)’이라고 적고 부의 물목과 부의자 성명, 주소 등을 날짜별 혹은 상장 의례별로 항목화해서 적는다. 부조기를 통해 망자 가문의 경제 형편이나 사회적 교제의 범위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의 물목을 분석함으로써 당시의 생활 모습, 물가 양상, 경제적 추이 등을 가늠할 수 있다.¹⁰⁾

셋째, 상장 의례에 사용되는 각종 의례문이다. 제문(祭文), 축문(祝文), 위문장(慰問狀), 명정문(銘旌文) 등이 그것으로, 이들은 상장 의례에 소용되는 의식문이다. 축문은 귀신에게 축원하는 형식의 의례문이며, 위문장은 간찰의 일종으로 부고를 받은 사람이 직무나 거리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접 조문하지 못할 때에 보내는 편지이다. 제문, 축문, 위문장은 통상 『주자가례』에 그 양식이 기재되어 있고 현전하

9) 성복(成服) 전까지는 조객 중 친척은 사자(死者)와의 속칭(俗稱)을 적고, 성복 후부터는 상주와의 속칭을 적어 표시한다(『한국민속의 세계』 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1, 200면) 이것은 성복의 의례적 의미, 즉 대렴(大斂)을 마치고 성복을 하는 것이 사자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고와 관련된다. 조객록의 기록은 산 사람끼리의 관계를 기록하게 된다. 즉, 망자의 죽음을 공식 인정하기 전과 그 후의 기록 양상이 바뀌는 것이다.

10) 조객록과 부의록은 조문과 부조란 측면에서 보면 일치하는 것으로 여겨, 동일한 작성자에 의해 하나의 문서로 작성된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망자 혹은 상주의 사회적 지위와 부조자의 사회적 지위에 서로 격에 맞지 않을 경우, 부조는 하지만 조문은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객록과 부의록의 내용이 대부분 중복되지만 하나의 문서로 작성되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상례의 규모나 상황이 조문과 부조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라면 통합하여 작성되기도 하였다.

는 문헌 자료의 대부분은 정형화된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천편일률적 면모를 띤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료의 문헌적 가치가 매우 적다. 다만 제문과 위문장의 경우, 주고받는 사람간의 관계, 위문장의 문학적 표현력, 작성자의 사회적 위상 등에 따라 그 자료적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끝으로 상장례에 따라 좀 더 세분화되거나 부가(附加)되는 다음과 같은 문헌 자료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 세분화된 기록의 예는 장택지(葬擇紙), 복차(服次), 제례(祭禮)의 등이며, 부가되는 기록은 각종 잡기류(雜記類)가 있다. 장택지는 장사택일지(葬事擇日紙)라고 하며 보통 택일지(擇日紙), 택일기(擇日記)라고도 한다. 망자의 사주(四柱), 시신이 묻힐 장지, 안장(安葬)할 날과 시(時)에 대한 택일, 각 방향과 방위에 대한 기록 등이 기록되어 있다.¹¹⁾ 장택지를 통해 풍수나 음택(陰宅) 사상과 그 변화 양상을 살필 수 있다. 복차는 망자와의 관계에 따라 복의 종류와 기간을 기록한 문서이며 제례는 상장례 기간 동안에 행해지는 제례에 대한 미시적인 기록이다.

잡기류는 상장례의 공식적인 기록물은 아니며, 상장 의례의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만들어진 기록물이다. 예를 들면, 『내상기(內喪記)』에는 신응순(申應純)이 그의 아내 서산(瑞山) 유씨(柳氏)의 죽음을 일지식 기록한 「잡기(雜記)」가 있다. 신응순은 아내의 병세와 사망 원인을 회고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상장 의례를 모두 마치고 협제(祫祭)하는 데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일지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요컨대, 이와 같은 잡기류는 공식적인 기록물은 아니지만 상장례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잡다한 기록물을 총칭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점에서 본고가 사용하고 있는 ‘상록류 문헌 자료’라는 용어는 일단, 상장 예속의 전 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문헌 자료를 가리킨다. 즉 임종(臨終)에서 상례, 소상(小祥), 대상(大祥), 담제(禫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생성된 문헌 자료를 총칭한다. 그러므로 넓은 범위에서 보면 상록류 문헌 자료를 작성하는 이론적 토대인 『주자가례』와 같은 예의서 역시 상록류 문헌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그 문헌 자료의 가치, 특히 상장 의례의 문화적 속성과 관련해서

11) 정승모, 「장택지에 나타난 조선 후기 장례 풍속」, 『역사민속학』 16호, 역사민속학회, 2003, 153면.

주목할 필요가 있는 상록류 문헌은 집사분정기, 신종록, 조객록, 부조기, 등이라 하겠다. 이외의 여타 문헌 자료의 경우는 자료의 내용 부족, 양식적 폐쇄성 등으로 인하여 상장 의례 연구 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연구 자료로의 활용이란 협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상장 의례의 절차와 관련되어 작성되는 복차, 제례 등과 같은 의례문이나 양식적 틀이 견고한 축문, 위문장과 같은 의식문 등 보다는 신종록, 조객록, 부조기 등이 적합한 연구 대상이라 하겠다.¹²⁾

2.2. 문헌 자료의 존재 양상

이제는 상록류 문헌 자료의 존재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상록류 문헌 자료의 목록과 서지적 사항들을 개괄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¹³⁾

첫째, 조객록류 문헌 자료이다. 이는 표제가 조객록(弔客錄), 조문록(弔問錄), 조위록(弔慰錄), 애감록(哀感錄), 위문록(慰問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내용상 부의자의 성명과 거주지가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이다. 상장 의례에서 조객록의 기록 형식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작성되는 문헌 자료에 해당된다.¹⁴⁾

12) 정형화된 글쓰기의 특징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는 상장 의례문 예컨대 축문, 제문, 위문장과 같은 경우나 상장 의례의 변화와 동시대적 특징을 추출하기 곤란한 자료, 자료의 활용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집사분정기(執事分定記)와 같은 종류의 상록류 문헌 자료는 본고의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조문록과 부조기를 제외한 상록류 문헌 자료는 그 자료적 가치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수준에서 이 모든 자료를 수집, 정리하기도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13)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문헌 자료의 서명(書名)은 기본적으로 '표제'를 따른 것으로, 이하의 모든 자료 목록 역시 이를 우선시하였다.

14) 필자가 자료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객류 문헌 자료의 존재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조객록류 문헌 자료의 수집과 정리가 좀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단국대 퇴계도서관 소장 『조객록(弔客錄)·애감록(哀感錄)』(갑진년 필사본, 1책), 단국대 율곡도서관 소장 『애감록(哀感錄)』 3종(각 1책, 19세기 필사본), 장서각 소장 박씨가(朴氏家) 『애감록(哀感錄)』(朴慶家 엮음, 1책 59장),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 『애감록(哀感錄)』 2종(1921, 1932년)과 『조위록(弔慰錄)』(1929년), 영

가. 조객록류(弔客錄類)의 문헌 자료

- [1] 『애감록(哀感錄)』 1책, 한문필사본, 민간 개인소장. 갑인년(甲寅年; 1854) 5월 초상과 이듬해 소상 시의 애감록. 대상(大祥) 시의 조객 명단은 없음.
- [2] 『위문록(慰問錄)』 1책, 한문필사본, 민간 개인소장. 경오년(庚午年; 1870) 정월 위문록, 임신년(1872) 정월 대상 시 위문록 합철. 소상(小祥) 시의 조객 명단은 없음.
- [3] 『애감록(哀感錄)』 1책, 한문필사본, 경주시 경주 최씨가(慶州 崔氏家) 소장. 계유년(癸酉年; 1873) 경주 최씨가 7월 8일 초상 시 애감록.
- [4] 『애감록(哀感錄)』 1책, 한문필사본, 경주시 경주 최씨가 소장. 계유년(癸酉年; 1873) 경주 최씨가 9월 9일 상례 시 애감록.
- [5] 『애감록(哀感錄)』 1책, 한문필사본, 경남 거창 초계 정씨가(草溪 鄭氏家) 소장. 무인년(1878) 초계 정씨가 애감록.
- [6] 『위문록(慰問錄)』 1책, 한문필사본, 민간 개인소장. 기묘년(1879) 6월 초중 시, 경신년(1880) 6월 소상 시, 신사년(1881) 6월 대상 시 위문록 합철.
- [7] 『애감록(哀感錄)』 1책, 한문필사본, 영천 이씨(永川 李氏) 농암종택(壘巖宗宅) 소장. 무자년(1888) 4월 2일 애감록.
- [8] 『애감록(哀感錄)』 1책, 한문필사본, 민간 개인소장. 계사년(癸巳年; 1893) 11월 초중, 갑오년(甲午年; 1894) 소상, 을미년(乙未年; 1895) 대상 시의 애감록 합철.
- [9] 『조객록(弔客錄)』 1책, 한문필사본, 경기 광주시 광주 안씨가(廣州 安氏家) 소장. 정유년(丁酉年; 1897) 광주 안씨가 조객록.
- [10] 『위문록(慰問錄)』 1책, 한문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소장. 신유년(辛酉年; 1921) 위문록.
- [11] 『위문급조객록(慰問及弔客錄)』 1책, 한문필사본, 민간 개인소장. 경오년(庚午年; 1930) 정월 조객록.

남대 도서관 소장 『애감록(哀感錄)』(경오년) · 『조객록(弔客錄)』(을해년) · 『조위록(弔慰錄)』 4종, 경북대 도서관 소장 『애감록』 11종 · 『조객록』 4종 · 『조위록』 3종, 부산대 도서관 소장 『애감록(哀感錄)』 6종 · 『조객록』 1종 · 『조위록』 1종 등.

- [12] 『애감록(哀感錄)』 1책, 한문필사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정축년(丁丑年; 1937) 애감록. 이제(裏題) 위문록(慰問錄).
- [13] 『위언록(慰唁錄)』 1책, 한문필사본, 민간 개인소장. 임오년(壬午年; 1942) 12월 30일 초중 시 조객록, 계미년(癸未年; 1943) 12월 소상 시 조객록, 갑신년(甲申年; 1944) 12월 대상 시 조객록 합철.

이상의 조객록류 문헌 자료는 망자나 상주의 사회적 교분이나 가문의 성쇠 등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날짜 별로 조문객을 기록하고 있어 상장 의례의 진행에 따른 의례의 규모와 의의 등을 엿볼 수 있다. 다만 부의자 명단을 간략하게 기록한 경우에는 상장 의례의 규모만 짐작할 수 있을 뿐, 실제 생활사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둘째, 부조기류 문헌 자료이다. 이들은 대개 표제에 '부의록(賻儀錄)'이라고 되어 있으며, 그 자료의 내용은 부의하는 자, 조문에 참여하는 자의 성명, 물품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앞선 조객록에 부의 물품이 첨가된 듯한 자료의 특징을 보인다. 이런 종류의 부조기류가 민간 자료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¹⁵⁾ 다만 상을 맞은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수록된 자료의 질적 편차가 커기 때문에 모든 문헌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삼기에 곤란하다.

나. 부조기류(扶助記類)의 문헌 자료

- [14] 『부의치부(賻儀置簿)』, 1책, 한문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영의정을 지낸 서중태(徐宗泰: 1652~1719) 상례 시에 작성된 부의록(賻儀錄). 51장.
- [15] 『부의록(賻儀錄)』, 1책, 한문필사본, 경주시 경주최씨가 소장. 계축년(癸丑年; 1913) 7월 8일 경주최씨가(慶州崔氏家) 부의록.
- [16] 『부의록(賻儀錄)』, 1책, 한문필사본, 민간 개인소장. 기해년(己亥年; 1899)~신축년(辛丑年; 1901). 기해년 6월 초중(初終) 시 부의록, 기해년 9월 상례(喪

15)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다음과 같은 부의록류 문헌 자료도 추가로 언급해둔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별부의책(別賻儀冊)』(1책 필사본), 영남대 도서관 소장 『賻儀錄』(임술년), 경북대 도서관 소장 『부의록』 2종, 부산대 도서관 소장 부의록 2종 등.

禮) 시 부의록, 경자년(庚子年; 1900) 6월 소상(小祥) 시 부의록, 신축년 6월 대상(大祥) 시 부의록 등이 합철.

- [17] 『부의록(賻儀錄)』, 1책, 한문필사본, 고려대 도서관 소장. 갑진년(甲辰年; 1904) 2월 8일 초중 시 부의록.
- [18] 『부의록(賻儀錄)』, 1책, 한문필사본, 민간 개인소장. 2인의 부의록이 합철된 자료. ① 망자(亡者) 미상(未詳)인 사람의 상장례 시 부의록 : 갑인년(甲寅年; 1914) 초상 시 부의록, 을묘년(乙卯年; 1915) 소상 시 부의록, 병진년(丙辰年; 1916) 대상 시 부의록. ② 신평 송씨(新平宋氏) 상장례 시 부의록 : 신미년(辛未年; 1931) 초상 시 부의록, 임신년(壬申年; 1932) 소상 시 부의록, 계유년(癸酉年; 1933) 대상 시 부의록.
- [19] 『부의록(賻儀錄)』, 1책, 한문필사본, 고려대 도서관 소장. 기미년(1919) 7월 28일 고복(梟復) 시 부의록.
- [20] 『부의록(賻儀錄)』, 1책, 한문필사본, 민간 개인소장. 무오년(1918) 초상 시 부의록과 기미년(己未年; 1919) 부물(賻物) 합철.
- [21] 『부의록(賻儀錄)』, 1책, 한문필사본, 민간 개인소장. 신유년(辛酉年; 1921) 정월 12일 초중 시 부의록과 이후 소상 시 부조록(賻助錄), 대상 시 부조록 합철.
- [22] 『부의록(賻儀錄)』, 1책, 한문필사본, 민간 개인소장. 을축년(1925), 강하수(姜夏秀) 모친 밀양(密陽) 박씨(朴氏) 초중 시 부의록. 호상(護喪) 강용수(姜用秀). 을축년 7월 26일 초중 시 부의록과 동년 동월 29일 부의록 합철. 표제 없음.
- [23] 『부의록(賻儀錄)』, 1책, 한문필사본, 고려대 도서관 소장. 을축년(乙丑年; 1925) 박태현(朴泰鉉) 집안 부의록. 권말에 김택영(金澤榮)이 찬한 박현곡(朴玄谷)의 묘지명(墓誌銘) 합철.
- [24] 『부의(賻儀)』, 1책, 한문필사본, 민간 개인소장. 경오년(庚午年; 1930) 3월 24일 부의록. <상중물품대(喪中物品代)> 합철.
- [25] 『부의록(賻儀錄)』, 1책, 한문필사본, 민간 개인소장. 임신년(壬申年; 1932) 12월 24일 부의록. 소상·대상 시 부의록 합철.

- [26] 『부의록(賻儀錄)』, 1책, 한문필사본, 민간 개인소장. 정축년(丁丑年; 1937) 8월 20일 정홍률(鄭弘栗) 부친 초종 시 부의록.
- [27] 『부의록(賻儀錄)』, 1책, 한문필사본, 고려대 도서관 소장. 무인년(戊寅年; 1938) 3월 5일 초종 시 부의록.
- [28] 『부의록(賻儀錄)』, 1책, 한문필사본, 민간 개인소장. 임오년(壬午年; 1942) 12월 초종 시 부의록, 계미년(癸未年; 1943) 12월 소상 시 부의록, 갑신년(1944) 12월 대상 시 부의록 합철.
- [29] 『부의록(賻儀錄)』, 1책, 한문필사본, 민간 개인소장. 정씨가(鄭氏家) 부의록. 임오년(1942) 고복(梟復: 초혼) 시 부의록, 소화 18년(昭和; 1943) 소상 시 부의록, 갑신년(甲申年; 1944) 대상 시 부의록 합철. 상장례 시의 역할별 담당자 명단, 집사분정기(執事分定記)가 앞부분에 합철되어 있음.

이상의 자료는 상장 의례와 관련된 생활사 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 상장 의례에 소용되는 물건, 부조 물목에서 드러나는 특징, 부조의 범위와 정도, 상례, 장례, 소상, 대상의 의례적 의미 등을 물질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 뿐만 아니라 시대별 혹은 지역별, 계층별 부조 물목과 양, 부조의 범위 등을 분석함으로써 상장 의례의 실제적 이해를 가능케 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부조 물목을 통해 물가의 변동 양상, 경제 상황의 추이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첫째의 조객록(弔客錄)과 둘째의 부의록(賻儀錄)이 합철된 문헌 자료이다. 즉 자료의 보관이나 기록 방식에 있어 첫째와 둘째가 변형된 형태의 기록 문헌이다. '조객록'은 기본적으로 조문객의 성명을 기록한 것으로, 조문자의 벼슬, 주소, 문상 방식, 망자와의 관계, 특별한 역할 등이 기록되기도 한다. 그리고 '부의록(賻儀錄)'은 부의(賻儀) 관련 기록으로, 일반적으로 부의를 한 조문객의 이름, 주소, 부의 물목 및 수량, 금액 등이 적혀 있다.

다. 조객록(弔客錄)과 부의록(賻儀錄)을 합철한 문헌 자료

- [30] 『조객록(弔客錄)』, 1책, 한문필사본, 민간 개인소장. 경진년(庚辰年; 1880)~

- 임오년(壬午年; 1882). 경진년 고복(阜復: 초혼) 때부터 임오년(1882) 대상 때까지의 애감록, 경진년 상례 시 만사(輓辭), 초상(初喪) 시 賻儀記 등이 차례로 합철.
- [31] 『조객록(弔客錄)』, 1책, 한문필사본, 전남 해남 해남윤씨가. 경오년(庚午年; 1870) 해남 윤씨가(海南 尹氏家) 조객록. 부의록(賻儀錄) 및 문부후발경행 시수부기(聞訃後發京行時受賻記)가 합철.
- [32] 『조문록(弔問錄)』, 1책, 한문필사본, 민간 개인소장. 을미년(乙未年; 1895)에서 정유년(丁酉年; 1897). 을미년 속광(屬纊) 때부터 정유년 대상(大祥) 시까지의 애감록, 을미년 초종(初終) 시 부의록, 상장례 시 역할별 담당자 명단인 집사분장기(執事分定記) 등이 합철.
- [33] 『애감록(哀感錄)』, 1책, 한문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소장. 기해년(己亥年; 1899) 7월 16일 초종(初終) 시 애감록 및 부의기(賻儀記) 합철.
- [34] 『위문록(慰問錄)』, 1책, 한문필사본, 민간 개인소장. 경술(庚戌年; 1910) 애감록과 임자년(壬子年; 1912) 대상 시의 부의록 합철.
- [35] 『부의록(賻儀錄)』, 1책, 한문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소장. 무신년(戊辰年; 1908), 기유년(己酉年; 1009), 경술년(庚戌; 1910) 정대유(丁大有) 차친(慈親)의 초종·소상·대상 시의 부의록. 상장례 시의 물목기(物日記), 조객록, 가계보록(家系譜錄), 애감록(哀感錄) 합철.
- [36] 『조객록(弔客錄)』, 1책, 한문필사본, 민간 개인소장. 임자년(壬子年; 1912). 위문록(慰問錄)과 부의록 합철.
- [37] 『위문록(慰問錄)』, 1책, 한문필사본, 민간 개인소장. 을묘년(乙卯年; 1915) 12월 고복(阜復: 초혼) 때부터 병진년(丙辰年; 1916) 정월, 2월, 8월, 12월, 정사년(丁巳年; 1917) 정월 중의 조객록, 부의록(소상 시로 추정), 정사년 정월, 2월, 8월, 10월, 12월 소상 때 사이의 조객록, 무오년(戊午年; 1918) 정월의 조객록, 정사년 12월의 대상 시 부의록 등이 다소 혼란스럽게 합철.
- [38] 『애감록(哀感錄)』, 1책, 한문필사본, 민간 개인소장. 무오년(戊午年; 1918). 애감록과 부의록 합철.
- [39] 『애감록(哀感錄)』, 1책, 한문필사본, 민간 개인소장. 경신년(庚申年; 1920)

4월 24일 부의록. 애감록과 부의록을 겹하여 기록.

[40] 『애감겸부의록(哀感兼賻儀錄)』, 1책, 한문필사본, 민간 개인소장. 신미년(辛未年; 1931). 애감록과 부의록을 각각 별도로 기록해 합철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속제목[裏題] 없이 양자를 한 자리에 겹해서 기록.

[41] 『위문록(慰問錄)』, 1책, 한문필사본, 민간 개인소장. 갑신년(1944) 10월 13일 외간상(外艱喪: 부친의 상사) 소상 시 위문록. 부의록을 겹함.

조객록과 부의록이 합철되어 상장 의례의 실상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본디 분리하여 작성한 것을 내용상 중복, 작성 경위의 동질성, 문서 보관의 필요성 등에서 합철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하나의 책자로 묶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로 합철된 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보다는 상례가 끝난 후에 하나의 책자로 정리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합·실기류(實記類) 문헌 자료이다. 이는 일종의 '종합기록'으로, 상장 의례의 절차 및 의식 등을 비롯해 역할별 담당자, 상구(喪具) 물목(物目), 망자(亡者)의 전기(傳記), 제문(祭文), 만장(輓章), 조객록(弔客錄), 부의록(賻儀錄)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해 놓은 자료를 지칭한다.

라. 종합·실기류(實記類) 기록

[41] 『내상기(內喪記)』, 1책(90장), 필사본, 영광(靈光) 영월 신씨가(寧越 申氏家) 소장. 신응순(新應純)의 처 서산(瑞山) 유씨(柳氏; 1571-1615)의 상장 의례 관련 문헌. 을묘년 5월 28일 죽음에서 정사년(정사; 1617) 협제(禘祭)까지의 상장 의례에 대한 기록. 증물호생록(贈物護生錄), 우설작치위(友設酌致慰), 날자별 조객록, 조장록(弔狀錄), 궤죽(饋粥) 및 전빈(奠賓)한 자의 명단. 부의 명단 및 물목,¹⁶⁾ 인부우마조역기(人夫牛馬助役記), 잡기(雜記),¹⁷⁾

16) 여기에 「회문부물(回文賦物) 이란 기록이 있는 점이 이채롭다. 「회문부물 은 상실(喪室)한 주인과 상가(喪家)의 어려운 사정 등을 적은 회문(回文)을 받고 부조한 자의 명단과 부물 목록 및 회문초(回文草)를 싣고 있다.

17) 신응순이 부인 유씨가 죽기 직전 상황에서부터 죽은 후 협제(禘祭)에 이르는 상장

치장절목(治葬節目) 및 상장통용물건(喪葬通用物件), 장시제차품수(葬時祭次品數), 장제홀기(葬祭筭記), 우졸곡절차(虞卒哭節次) 및 부의 물목, 만장(挽章)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

- [43] 『신유상록(辛酉喪錄)』, 1책(40장), 필사본, 민간 개인소장. 승록대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使)을 지낸 남양 이씨(南陽李氏: 1797-1861)의 상장 의례 관련 문헌. 신유년(辛酉年; 1861) 3월 16일 마동(麻洞) 사랑(舍廊)에서의 별세 순간부터 동년 5월 1일 졸곡(卒哭) 때까지의 상장 의례 절차 기록. 집사분정기, 상장 의례 소용 물목 등 기록. 신유년 초종(初終) 시 부의록, 임술년(壬戌年; 1862) 소상 시의 부의록, 계해년(癸亥年; 1863) 대상 시의 부의록. 초종부터 대상까지의 조객록(弔客錄), 제문 5편.(한문), 딸·며느리·조카의 제문 4편.(한글) 계해년(癸亥年; 1923) 면례(緇禮)¹⁸⁾
- [44] 『조객록(弔客錄)』, 1책, 한문 필사, 경기 광주시 광주 안씨가(廣州 安氏家). 정해년(丁亥年; 1887) 광주 안씨가 조객록. 상장례행록, 부의록, 상장례 시의 소용 물목 등 합철.
- [45] 『숙인조씨실기(淑人曹氏實記)』, 1책, 연활자본, 민간 개인소장. 갑술년(1934)에 졸(卒)한 창녕 조씨(柳化鍾의 모친)의 상장례 관련 기록. 편찬 시기는 3년 상을 마친 병자년(1935)년 무렵. 망자(亡者) 가문의 연고지는 전북 고창. 숙인창녕조씨묘지명, 부고(訃告), 조객록 및 각 조문객의 조사(弔辭), 각 조문객의 위장(慰狀).(이상 한문). 숙인조씨실기, 애도사 26편,¹⁹⁾ 연년당기(延年堂記), 효열부숙인조씨전, 숙인창녕조씨묘지문, 영결식 참석 조의자(弔意者) 명단, 축문, 만장(挽章) 5편, 조객록(명단 약 500인), 조문객들의 애도사 약 25편.(이상 한글)

종합·실기류는 상록류 문헌 자료 가운데 연구 가치가 가장 높은 경우에 해당한

의례의 전 과정을 한문 일지의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18) 면례(緇禮)는 이장(移葬) 혹은 개장(改葬)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망자의 무덤을 경기 양주에서 파주로 이장한 것을 가리킨다.

19) 숙인조씨를 애도하는 시는 연년당운(延年堂韻)이라는 제목 하에 기록되어 있다.

다. 조문이나 부조의 양상뿐만 아니라 상장 의례의 세세한 국면을 모두 기록한 것이다. 이는 상장 의례의 총체적 면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형태의 문헌 자료는 상록류 문헌 자료의 일반적 기록 형태라고는 할 수 없으며 발견된 자료의 숫자도 그다지 많지 않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많지만 현전하는 문헌 자료의 수적 한계로 인하여 활용에 제한이 있는 자료라 하겠다.²⁰⁾

3. 상록류 문헌 자료의 특징과 의미

3.1. 문헌 자료의 특징

상록류 문헌 자료는 현 상황에서 구체적 면모를 확인한 45종의 경우와 소장 목록과 명칭만 확인한 46종을 포함하여 모두 90여 종을 상회한다. 그렇다면 이런 같은 상록류 문헌 자료가 보이는 특징적 면모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현전하는 문헌 자료의 작성 시기와 관련된 것이다. 확인된 상록류 문헌 자료들은 17세기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작성된 것이다. 특히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작성된 문헌 자료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자료의 상태 및 가치 보존 가치와 밀접히 관련된다.

애초 상록류 문헌 자료들은 ‘날장’ 문서이거나 ‘준성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상(喪)의 규모가 작아서 집사의 업무가 세분화가 되지 못한 경우, 작성된 문서를 모아 성책화(成冊化)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성책화하기에는 분량이

20) 앞서 상록류 문헌 자료의 특징을 네 유형으로 범주화하고, 현재까지 파악 가능한 문헌 자료 목록을 간단한 해제와 함께 정리하였다. 제시한 유형과 달리 상록류(喪錄類) 문헌 자료는 성책(成冊) 양태와 내용적 특징, 그리고 새롭게 발견되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새로운 범주화하고 그 분류안을 제시함으로써, 목록화 및 해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간 상례 관련 문헌 자료는 이상의 유형 분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본다.

너무 적기 때문이다. 또한 조객록류와 부조기류가 문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상례의 경우 그 보존 가치가 2-3세대를 넘지 못한다. 지역 사회의 인적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조문 및 부조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인적 관계가 소멸한 경우, 조객록이나 부의록을 보존할 필요가 없어지기 마련이다. 결국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존 가치가 적어지는 낱장 문서나 준성책류의 문서를 오랜 기간 동안 보존하여 전승하기란 어렵다고 하겠다.

이것은 상록류 문헌 가운데 비교적 이른 시기의 자료로는 성책 상태로 전하는 『내상기』([42])와 『신유상록』([43])의 경우가 유일한 것을 보면 더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이들은 애초 낱장 문서 혹은 준성책의 문서 상태로 작성된 후, 상록류 문서를 다시 정리하여 성책화함으로써 전승될 수 있었다. 성책 상태가 보존 및 전승에 유리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상록류 문헌 자료에 대한 수집 및 정리가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현재까지 정리된 자료 양상과 특징이다. 현전하는 상록류 문헌 자료는 조객록류나 부의록류이거나 이들을 합철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반해 상례에 대한 종합 기록이라 할 수 있는 종합·실기류는 매우 적다. 이것은 상장례에 누가 언제 참여했고, 어떤 물목을 부조했는가에 주된 관심을 기울였고, 상장례의 전모를 후세에 전하는 것에는 그리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조객록의 경우 조문한 날짜별, 의례별, 조문의 형식별로 구체화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는 어떤 상장 의례에 어떤 방식으로 누가 참여했는가를 명백히 한 것이라 하겠다.

부조 물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떤 물목을 언제 누가 얼마만큼 부조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상장례에서 부조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알게 한다. 물론 상장례의 규모와 업무의 세분화에 따라 기록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상장례의 경우는 조문객과 조문 시기 및 방식 그리고 부의 물목과 수량, 부조 시기 등이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존재 양상에서 드러나는 특징이다. 상록류 문헌 자료들은 명칭의 다양화와 내용의 통합 현상이 드러난다. 조객록은 망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그 명칭이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현전하는 자료의 대부분은 망자와 주상의 관계에 따른 명칭의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조위록(弔慰錄), 위문록(慰問錄),

조문록(弔問錄), 애감록(哀感錄), 영객록(迎客錄)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민간 상례에서는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자료의 명칭, 표제를 굳이 구분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중복된 내용의 통합화 경향에서도 확인된다. 원칙상 조객록과 부조기는 엄격히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조객록과 부조기가 그 내용상 많은 부분에서 중복된다고 해도 그것을 통합하여 작성하는 것은 예(禮)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부조는 해도 조문에는 참여하지 않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전하는 문헌 자료의 상당수는 이와 같은 원칙적 문헌 작성이 지켜지지 않고 조객록과 부조기가 통합되는 현상을 보인다. 조객록과 부조기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조문객의 성명 및 신분, 거주지, 조문 날짜 등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중 기록의 번다함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형식과 절차보다 실질적 과정을 중시하는 조선 후기 민간 상장례에서는 조객과 부의를 확연하게 구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상록류 문헌 작성에 있어 명목적 요구와 현실적 상황이 통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민간 상례는 이처럼 내용의 실질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반해 상층 사대부가를 중심으로 한 상록류 문헌의 기록은 그 내용이 세분화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체계를 갖춘 성격이 되기도 한다. 『숙인조씨실기(淑人曹氏實記)』와 같은 경우가 그러하다. 『숙인조씨실기』는 상장례의 규모 및 그 물적 기반을 토대로 온전한 형태의 문헌 기록, 성책화하였다. 결국 민간 의례와 상층 지배집단의 의례의 구분과 차별에 의한 실용성의 강화 현상이 상례의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다.

3.2. 문헌 자료의 의미

본고에서 고찰한 바, 상록류 문헌 자료는 어떤 존재 의미를 지니는가. 그간 연구자들에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분야를 체계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문헌 자료의 보존 가치가 있고, 연구 대상으로 의미를 가지는지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첫째, 민간에서 행해진 과거 ‘생활상례’의 실례를 실증자료에 의거해 살핌으로써 전통 상례풍습을 보다 가까이서 조망할 수 있다. 앞 장에서 살핀 것처럼 상록류 문헌의 자료적 실상이 온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민간의 상례 현장을 실증 자료로 포착하여 그것을 생활사 기술의 시각에서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물다. 미시적 생활 문화의 측면이라 할 수 있는 ‘부의 문화’에 주목한 연구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통 상장례에 있어 부의 물목(物目)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러한 물목을 부의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어떤 차이를 지니며, 물건이 돈으로 대체한 시기는 언제인지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들도 명료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상례 시 조문객의 규모는 얼마나 되었으며, 초종·소상·대상 시의 조문객의 규모는 대략 어느정도나 차이가 났으며, 조문객 중 친족과 비친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었는지 등과 같은 기초적 의문에 대한 해명 역시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상록류 문헌 자료는 조문객, 부의(賻儀) 물목(物目), 부의 금액 등을 둘러싼 사회 문화사적 의미를 추출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 『신유상록』의 부의 물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다.

- 음식류 : 미음(米飮), 구이[炙], 쇠고기쌀죽[湯元味], 절병(切餅), 국수[糲], 녹두죽(菘豆元味), 중계(中桂) 등.
 - 물품류 : 백지(白紙), 황촉(黃燭), 등불[大燈], 생목(生木), 왕등(王燈), 장지(壯紙), 양지축(羊脂燭), 백목(白木), 정목(正木), 유거(杻炬), 용지(龍脂), 육축(肉燭) 등.
 - 생물류 : 홍합(紅蛤), 해삼(海蔘), 육포[脯], 쇠다리[牛臂], 생전복(生全鰓), 닭[鷄], 계란(鷄卵), 수어(秀魚),
 - 금전류 : 돈(錢)
- 『신유상록(辛酉喪錄)』

위 『신유상록』에서 볼 수 있는 부의 물목은 다양하기 그지없다. 사실상 상장례가 진행되는 동안 필요로 하는 모든 물품이 부의의 대상이 된다. 또한 한 사람이 부조하는 품목도 단일하지 않다. 『신유상록』에는 찰방 방운필(方允弼)의 집에서 부조한 것은 미음(米飮)과 돈 2냥이며, 임술년(壬戌年) 소상(小祥) 때, 판관 김수남(金秀男)의 집에서는 홍합, 해삼, 포를 부조한다.²¹⁾

이와 같은 자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부의 물목을 통해서 금전보다 상례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부조가 주를 이루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상장례 기간 동안에 제공되는 죽, 유과는 물론이고 종이, 목재, 기름, 및 각종 음식 재료들이 부의 물목에 보인다. 이는 상록류 문헌 자료가 상장례의 문화, 생활 문화를 알게 하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임을 뜻한다.

둘째, 부조 물목의 수량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드러난다. 부조 수량은 상을 맞은 집안, 부조하는 사람의 형편 등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인다. 이것은 부조하는 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특정 부의록에만 집중적으로 보이는 부조 물품이 있는데, 이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목으로 짐작된다. 이는 부조가 생업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노래 한 곡조’로써 부조하는 경우도 있다. 물건 부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의 형편에 맞는 것을 부조한 예라 하겠다. 이것은 상록류 문헌 자료 분석을 통해 부조자의 특성까지 파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부조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부조 문화는 인근 지역민과 친인척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망자의 신분이 특별한 경우 부조의 범위가 넓어지기는 해도, 대부분의 경우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영의정을 역임한 서종태(徐宗泰: 1652~1719)의 상례 시 부의록인 『부의치부(賻儀置簿)』와 같은 경우, 18세기 당시 각 중앙 관청 및 지방관이어서 보낸 엄청난 양의 부의 물목과 금액이 기록되어 있어, 상장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는 망자의 사교 범위에 따라 그 편폭이 작아져, 부의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나 부조하는 물품의 수량이 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넷째, 각각의 상(喪)이 상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할 수 있다. 부의 물품과 그 수량, 부조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초상, 소상, 대상의 물목에 일정한 변화를 볼 수 있다. 특히 날짜와 의례에 따라 조문객과 부조 양상을 꼼꼼하게 기록한

21) 辛酉三月十六日賻儀

方察訪允弼宅 米飲壹哭 錢文貳兩

壬戌三月十六日小祥時

金判官秀男宅 紅蛤貳升 海參貳升 脯貳貼 (『신유상록』, 17면.)

자료는 각 상장 의례의 비중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예컨대 『부의록(賻儀錄)』([18])의 함사현(咸士玄)이 부조한 물품 수량은 상장 의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 초상(初喪)의 경우 백지 한 묶음, 소상(小祥)의 경우 돈 30전, 대상(大祥)의 경우 돈 20전, 양축(洋燭) 2자루, 담배 한 묶음[南草一把]이 그것이다.²²⁾ 함사현은 소상일 때 부조 물량을 적게 하고 초상과 대상은 비슷하게 하였다. 이것은 각 의례의 중요도가 부조자에게 달리 인식되었음을 뜻한다.²³⁾

다섯째, 부의 물목이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부의록에서 다양한 물품이 부조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이르면 부조 물목이 백주(白酒), 백지(白紙), 금전(金錢)으로 통합되어 가는 양상이 드러난다. 특히 금전의 부조 빈도가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상업 경제의 지역적 확산이란 측면을 볼 수 있다. 물물 거래 중심의 자급자족적 경제 구조보다는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파는 상업 경제적 사회 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금전 부조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을 것이다. 이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의 문화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상록류 문헌 자료는 이상과 같은 생활사적 차원의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의미가 있다. 예컨대 ‘민간 의례’로서의 위상을 가진 상록류 문헌 자료를 통해 민간상례와 궁중상례를 비교 연구할 수 있다는 것, 부의라는 의례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지역적 동향과 실상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 부의 문화와 근대 이후 부의 문화를 비교·조망할 수 있는 것, 민간 전통 상례문화를 회갑, 초례(醮禮·관례), 혼례 등 다른 전통 의례와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자료적·연구사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 등이 그렇다.

요컨대, 상록류(喪錄類) 고문헌의 자료적 실태와 위상은 이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

22) 咸士玄 白紙一束 本里(부의록 [18], 3면.)

咸士鉉 金三十錢 本里(부의록 [18], 6면.)

咸士玄 金二十錢 洋燭二柄 本里 南草一把(부의록 [18], 7면.)

23) 물론 초상에는 부조하지 않았던 박치선(朴致善)의 경우 소상과 대상에 모두 북어(北魚) 열 마리를 부조한다. 그러나 소상에 유과 2동을 대상에 유과 7동을 부조한 김춘집(金春集)이나 소상에 밤 2되와 메밀 한 광주리를 부조하고 대상에 산 닭 한마리, 북어 열 마리, 계란 10개를 부조했던 김영화의 경우를 보면 소상보다는 대상이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짐을 알 수 있다(부의록 [18], 3-8면.).

됨으로써 그 가치와 의미가 비로소 온전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상록류 문헌 자료에 대한 다양하고 심화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4. 맺는말

본고는 상장 의례에 관한 구체적 기록을 담고 있는 상록류 문헌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이를 수집·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상록류 문헌 자료란 상장 의례의 과정에서 작성되는 모든 문헌 자료를 총칭하는 것이다. 상록류 문헌 자료는 『국조오례의』나 『주자가례』와 같은 예의서를 포함한 상장 의례의 전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헌 자료를 총칭한다. 그러므로 상록류 문헌 자료에는 집사분정기, 신종록, 조객록, 부조기, 장택지, 복차 등만 아니라 축문, 제문, 제례 등과 같은 의례문과 상장 의례 관련 잡기류 등도 포함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 가운데서 현재적 관점에서 연구사적 가치가 있는 일부 자료에만 주목하여 그 목록을 제시하고 간략한 해제를 붙였다. 본고가 주목한 상록류 문헌 자료는 조문록(弔問錄), 조위록(弔慰錄), 애감록(哀感錄), 위문록(慰問錄) 등으로도 불리는 조객록류(弔客錄類) 문헌 자료, ‘부의록(賻儀錄)’이라는 표제를 가지는 부조기류 문헌 자료, 조객록(弔客錄)과 부의록(賻儀錄)이 합철된 문헌 자료, 그리고 상장 의례의 종합기록에 해당하는 종합·실기류(實記類) 문헌 자료 등이다.

이런 상록류 문헌 자료는 대부분 17세기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것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조객록류와 부의록류가 대부분이다. 이들 자료는 그 명칭이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내용은 조문객과 부의자의 명단을 날짜별로 정리되었다. 다만 이들이 명칭과 내용에서 실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 이는 조객록류의 명칭에서 보이는 다양성, 조객록과 부의록의 통합 기록의 경향성 등에서 잘 드러난다.

상록류 문헌 자료의 문화적 의미는 무엇보다, 민간에서 행해진 과거 ‘생활상례’의 실례를 실증자료에 의거해 살핌으로써 전통 상례풍습을 보다 가까이서 조망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라는 것이다. 물론 부의(賻儀)를 둘러싼 사회적·지역적 동향과 실상을 비로소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전통 상례 문화를 회갑, 관례, 혼례 등 다른 전통의례와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자료적, 이론적,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이른바 상록류(喪錄類) 고문헌의 자료적 실태와 위상을 확인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심화된 연구사적 방향을 꾀할 수 있다.

상록류 문헌 자료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이다. 상록류 문헌 자료의 확인 및 정리, 그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생활 문화 전반에 대한 연구 성과가 제출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상록류 문헌 자료를 수집하고 그 일반적 특징을 개괄적인 수준에서 언급했지만, 이후 좀 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²⁴⁾

주제어: 상례, 의례, 상록류 문헌, 조객록, 부의록, 부의, 문화

24) 논문 작성 과정에서 자료의 수집 및 정리를 도와 준 문화영 연구조교에게 감사드린다.

<참고문헌>

- 『한국민속의 세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 『한국상장례』, 국립민속박물관, 1990.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조선시대 관혼상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2000.
- 장철수, 「주자가례(朱子家禮)와 사례편람(四禮便覽)의 상례」, 『한국문화인류학』 6, 한국문화인류학회, 1973.
- 안호룡, 「조선전기 상제의 변천과 그 사회적 의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정종수, 「조선초기 상장 의례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임재해, 『전통상장례』, 대원사, 1995.
- 장철수, 『한국의 관혼상제』, 집문당, 1995.
- 장현섭, 「현대한국인의 상례 관행과 개선 방안」, 『가족학논집』 제 8집, 한국가족학회, 1996.
- 김종혁, 『조선의 관혼상제』, 중심, 2002.
- 김시황, 「한국 상례 장례 연구」, 『동양예학』 8, 동양예학회, 2002.
- 박미해, 「조선중기 이문건가의 천장례 준비-목재일기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통권 68호, 문학과 지성사, 2005.
- 송현동, 「근대 이후 상장례 정책 변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역사민속학』 14, 한국역사민속학회, 2002.
- 송현동, 「현대 한국 장례의 변화와 그 사회적 의미」, 『종교연구』 32, 한국종교학회, 2003.
- 정승모, 「장택지에 나타난 조선후기 장례 풍속」, 『역사민속학』 16호, 역사민속학회, 2003.
- 정승모, 「신응순의 『내상기(內喪記)』를 통해 본 17세기 초 상장례 풍속」, 『장서각』 제 10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 허용호, 「전통 상례를 통해 본 죽음」, 『한국고전연구』 6, 한국고전연구학회, 2000.
- 이희재, 「한국 전통상례의 윤리적 의미」, 『비교한국학』 6, 국제비교한국학회, 2000.
- 김광여, 「문화실천 공간으로서의 죽음의 의례」, 『민족문화논총』 제 22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0.
- 이연숙, 「절리와 통합으로 본 통과의례의 공통성과 그 의미- 혼례와 장례를 중심으로」, 『새얼어문논집』 16, 새얼어문학회, 2004.
- 유권중, 「유교의 상례와 죽음의 의미」, 『철학탐구』 제 16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04.
- 최영갑, 「유교의 상장례에 담긴 죽음의 의미」, 『논문집』 제 19호, 한국양명학회, 2007. 12.

[Abstract]

A Study on documentary records of funeral customs and ceremonies and its cultural meanings

Chun Sungwoon

This thesis aims to research the documents concerning funeral customs and ceremonies, especially its characteristics and its cultural meanings. It will be helpful for understanding the traditional funeral ceremony.

The category of documents concerning funeral customs and ceremony comprise of the *Gukjoohlyeji*, *Jujagajye*, *Jipsabunjeonggi*, *Sinjongrok*, *Jogaekrok*, *Bujogi*, *Jangtaekji*, and *Bokcha* etc. But some documents are lack of the value of research because of their formality and simplicity. For this reason, I study on sorts of *Jogaekrok* and *Bujogi*. These documents, *Jogaekrok* is the list of persons visited for condolence and *Bujogi* is the list of money and goods for condolence, tell us the phase of funeral processing.

But still those documents are not collected and arranged. On this research, I verified severel facts that these are mostly written from the 17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and those are more than 90 books. The title and consistence of these documents are diverse. Generally it called *Jogaekrok* but it also called *Wimunrok*, *Aeganrok*, *Jomunrok*, *Jowirok* etc. And the consistence of these are four kinds, for examples the list of name, the list of goods and money, the list of name, money and goods, and the manual of funeral ceremony, the list of name, goods and money. It means that the circumstance of each funeral make differ the name and consistence of funeral documents.

These documents involves several cultural meaning. First, It could be concrete

and specific data about traditional funeral ceremony. Second, it also be brought to the social-structure of traditional Korean society based on the list of name written in documents. Third, it could be possible to compare funeral customs and ceremonies with other rite of passages, marriage, the coming of age ceremony etc.

Now, it just begins the research on the documents of funeral customs and ceremonies. So it should be continued studying on documents concerning funeral.

【Key words】 : funeral customs, ceremony, documents of funeral ceremonies, the record of funeral custom and ceremony, record of caller for condolence, records of goods and money for condolence, culture

전성운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336-745)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순천향대학교

전자우편: sah-love@hanmail.net

이 논문은 2010년 8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0년 8월 30일에 심사 완료되어 9월 3일에 게재 확정되었음.